

# 다른 세계로의 여행과 문화의 만남

-한국고전문학 작품의 사례-

진재교(한국, 성균관대학교 교수)

# 1.미지의 세계와 만남

- (1) 세계를 향한 발걸음—다른 문명을 찾아 나선 세계인
- (2)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표류

# 2. 이방인(異邦人)이 본 조선

# 3.중국, 그리고 중국 너머

- (1) 문화와 지식의 큰 창구, 중국
- (2) 중국에서 만난 이역(異域) 사람들

# 4.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발견

# 1.미지의 세계와 만남

- 고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로 이어지는 비단길을 따라 형성. 동/서양은 이 길을 통해 물산, 종교, 문화를 주고받았음. 비단길은 문명을 잇는 가교며 교류의 마당. 비단길의 동쪽 종착지인 한국은 이 길을 통해 이역(異域)의 국가들과 교역. 혜초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은 이렇게 탄생.
- 혜초(慧超)처럼 중국을 거쳐 비단길을 따라 구도(求道)의 길을 떠난 승려들은 미지의 문명으로 떠난 세계인. 전근대 한자문화권에서는 중국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중국을 통로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만나는 일이 많았음. 이러한 만남을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은 사행(使行).
- 라틴문화권과 같은 하나의 문명 단위였던 한자문화권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여러 국가는 항상 중국과 관계를 맺고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 이 점에서 중국을 인식하고 중국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세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

-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여러 국가들이 미지의 세계와 만나는 또 다른 통로는 바다. 근대 이후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들은 주로 대항해를 거쳐 해양을 배경으로 성장하였음. 고대 유럽 역사에서는 그리스가 페르시아군을 이겨 지중해를 장악하며 강국이 되고, 기원전 3세기에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해 대제국을 건설한 것도 모두 해양(바다)과 연결되어 있음.
- 대항해 시대 이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도 해양을 지배하여 식민지를 건설한 것도 해양을 통해서 임. 서양의 제국은 바다를 지배하고 특히 동양권에 식민지를 구축하면서 세계사에 부상. 근대전환기에 일본 역시 해양을 활용해 제국의 길로 나아갔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역시 고대로부터 해양과 깊은 관계를 지녔음. 한반도는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해양 문화의 이동 경로에 있었음. 고대국가인 고구려/백제/신라/가야는 7세기까지 일본 열도로 진출하였고, 가락국(駕洛國)의 허왕후(許王后)는 해양으로부터 한반도에 들어온 이역의 인물.

- 뜻하지 않은 이방인의 방문도 있었음. 주로 표류(漂流)를 통해 한반도에 온 경우임. 표류는 원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표류를 통해 표착지(漂着地) 국가의 이(異) 문화를 기록한 표류기는 국가 상호 간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줌. 네덜란드인 하멜의 표류도 그러하였음. 하멜은 네덜란드 귀국 후 서구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널리 알리고, 그의 <하멜표류기>는 서구인의 조선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음.
- 한반도가 해양을 장악했을 때, 역사적으로 세력을 떨쳤으며, 이 문화와의 교류도 활발하였음. 신라(新羅) 장군 장보고(張保臯, 9세기 인물)가 그러하였고, 고려(高麗)의 경우, 서역의 문화가 넘나들고,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서역인이 왕래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와 함께 바다 길을 막아버리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시행하여 해양을 등한시하였음. 그 결과 바다로부터 온 서구 세력의 동향에 무관심하였고, 결국 주권마저 빼앗기고 말았음.

## (1) 세계를 향한 발걸음—다른 문명을 찾아 나선 세계인

- 혜초(慧超, 704~787)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은 세계적 여행기다. 이 여행기는 서역과 아랍의 문화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책 중의 하나이다. 혜초는 불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인도와 서역 및 아랍을 여행. 혜초의 여행기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터키 지역까지 언급하고 있음.
- 그가 여행한 여러 소국(小國)은 지금의 아랍권에 속하는 국가임. 혜초는 불법을 위해 인도로 구도의 길을 떠나, 새로운 문명권인 아랍에까지 발길이 닿았던 것임. 혜초는 소국의 구체적인 이름에서부터 정치적인 관계와 현재 상황과 그들의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 특히 물산과 특이한 풍속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있어 아랍문명권의 풍속지(風俗志)로도 손색이 없음.
- 혜초가 주목한 것은 당나라와 신라에서 견문할 수 없던 물산과 풍속. 혜초는 처음으로 아라비아를 대식(大寔, 즉 大食)으로 이름하였음. 혜초는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보를 생생하게 담고 있어 『왕오천축국전』은 문명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념비적 작품. 더욱이 한자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동서 문명 교류사에서 중요한 저술이자 세계적인 기행문학임. 이 점에서 혜초는 한반도 최초의 세계인이자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 선구자임.

- 다른 문명을 찾아 나선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고선지(高仙芝, 8세기 인물). 그는 고구려계 당(唐)나라 장군. 원정길에 올라 실크로드의 제왕으로 등극한 인물. 자국의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서역(西域)의 수호신’으로, 아랍 사료에는 ‘중국 산맥의 왕’으로 묘사될 만큼 서역에까지 이름을 떨쳤음. 그는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돌아 올 수 없는 사막’ 타클라마칸과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파미르 고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와칸 계곡’과 ‘히말라야 힌두쿠시 산맥’의 ‘다르코트 정상’에 이르는 비단길을 장악.
- 혜초가 구도를 위해 이역에까지 갔다면, 고선지는 토벌의 임무를 띠고 다른 문명과 만났음. 그는 대 당나라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파미르 고원을 다섯 차례나 넘나들면서 큰 전공을 세웠음. 고선지는 비록 전쟁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명으로 진출한 또 한 사람의 세계인.
- 고선지의 원정은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당나라 제국과 이슬람제국이 병립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성립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으며, 동서 교류에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도 의미를 지님.

## (2)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표류

- 표류(漂流)란 풍랑으로 바다를 떠다니는 것을 말한다. 표류하면 대개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남는 경우는 적음. 표류는 간혹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도 있는데, 그때의 체험은 참으로 남다른 것임. 이처럼 표류과정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을 ‘표류기(漂流記)’, 또는 ‘표해록(漂海錄)’이라 함. 『하멜표류기』가 그 예다. 표류기는 언어와 풍속이 다른 낯선 나라에서의 견문과 다른 문화를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어, 이쪽과 저쪽의 문화를 전달함으로써 전근대 문명이 다른 지역의 상호 소통의 역할과 상호 인식에 결정적 기여를 함.
- 조선은 해금 정책을 펴 모든 이에게 바다로의 왕래를 제한하였지만, 사행(使行)과 도서(島嶼 : 섬)의 왕래는 예외. 중세 시기에 이국인이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장소는 제주도. 이국 인물과 선박이 제주도에 표착하는가 하면 제주도를 출발한 조선인도 이국 땅에 표류하는 경우도 있었음. 최부(崔溥, 1454~1504)의 경우가 그러하였음. 그가 표류하며 남긴 기행문인 『표해록』은 한표류기의 대표적 작품. 최부의 『표해록』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중국 내륙을 여행하고 쓴 ‘표류기’이자 중국견문록임.

- 최부 일행이 중국의 강남에 표착(漂着)하여 귀국하기까지 거리는 3,200km. 최부처럼 중국 명(明)나라의 경제 중심지이며, 문화가 가장 번성한 강남 지방을 비롯하여 산둥 지방까지 두루 견문한 경우는 드문 사례임. 최부가 표착한 강남 지방은 송나라 이래 중국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명나라 때에도 국제 무역이 활발하던 곳.
- 최부는 『표해록』에서 중국 명나라 강남 지방의 활발한 모습을 견문한 체험을 사실대로 기록. 그는 동아시아 각국과 문물을 교류하고 물화를 교역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모습과 일본, 유구,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국제 무역하는 정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음. 강남 지방의 물산이 강과 운하를 통해 북경까지 운송되는 상황과 명나라 당시의 인문 지리를 함께 기록.
- 당시 조선은 육로를 통해 사행을 보내고, 바닷길은 막았음. 명나라 역시 해금(海禁) 정책을 펴 조선과의 바닷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바다 밖의 국가들과 교류는 커녕 그 움직임조차 몰랐음. 신라와 고려 시대에 활발하게 오가던 바닷길은 조선에 와서 막혀버리고 말았음

- 최부는 강남지방에서 견문한 국제 무역과 해양 지식, 그리고 강을 활용한 운송 등을 주목하였음. 무엇보다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던 명나라 내륙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는 좀처럼 체험하기 어려웠던 중국의 속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내부의 움직임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였음.
- 최부의 『표해록』은 조정 보고를 위해 작성이 되었지만, 보기 드물게 에도[江戸] 시대 일본에까지 유입되어 상업 출판의 대상이 됨. 일본은 1796년에 『당토행정기(唐土行程記)』라는 이름으로 『표해록』을 번역하여 유통.
- 일본은 당시 중국과 외교관계를 통해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도 막부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저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관련 지식·정보와 조선 지식인이 중국을 보는 시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았음. 에도 시대 일본 지식인들이 최부의 『표해록』을 재발견한 것이거니와, 국내보다 일본에서 먼저 문화교류사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일본의 출판업자들은 다시 개정판을 내어 『통속표해록』으로 간행할 정도로 『표해록』은 상업 출판의 중요한 대상.

## 2. 이방인(異邦人)이 본 조선

- 전근대 조선인이 서양(西洋)을 만나는 방법은 조선 해안에 표류한 경우가 유일. 그 반대로 서양인이 조선과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 17세기 전후 서양은 국제 무역을 위해 마카오나 일본의 나가사키에 왔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박이 대표적 경우임.
-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무역을 하던 동인도 회사 선박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며 미지의 세계에 표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 표류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여행은 아니었음.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음.
-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인 무역선 스페르웨르(Sperwer)호에 승선한 36명은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태풍을 만나 제주도의 해안가에 표착. 여기에는 이 선박의 서기 헨드릭 하멜(?~1692, Hendrick Hamel)도 있었음. 조선에 표착한 하멜은 13년 만에 탈출한 뒤, 억류 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 조선에서의 표류체험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문서 양식에 맞추어 쓴 기록이 바로 <하멜표류기>임.

- 17세기 전후로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에 표류한 것은 하멜이 처음은 아니었음. 이미 박연[벨테브레]이 있었음. 바로 전에 그는 표류하다가 제주에 표착하여 조선에 귀화(歸化)하여 살고 있었음. 하멜이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이르렀는데, 제주 목사가 그를 심문할 때, 박연이 관복을 입고 통역하자, 하멜은 깜짝 놀람.
- 당시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무기 만드는 곳)에 박연을 배치하여 명나라로부터 들여온 홍이포(紅夷砲)의 제작과 조작법을 익히게 하였음. 또한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는 청나라와 전투에도 박연을 참여시킨 바 있었음. 조선 정부가 하멜을 억류하여 네덜란드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것 역시 하멜을 통해 서구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였음.
- 특히 국왕인 효종(孝宗)은 청나라를 친다는 북벌(北伐)을 위해 서양 화포의 조작법을 아는 하멜을 각별하게 대접하였음. 하지만 하멜은 전혀 원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에 고통스러워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음. 조선에서의 생활은 돌아갈 기약 없는 여행이었지만, 그는 조선의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많은 조선인과 풍속을 체험하였음. 하멜은 귀국 후 자신이 적은 기록(표류기)에서 조선의 사회와 조선인의 생활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한 것은 다양하게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임.

- 하멜은 귀국 후 1668년에 로테르담에서 네덜란드어로 『하멜표류기』를 출판. 그 뒤에 이 책은 영어, 불어, 독어로 번역되어 유럽인들에게 조선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함. 『하멜표류기』는 조선 땅을 거쳐 간 서양인 최초의 발자취이기도 하지만, 조선을 세계에 알린 ‘스테디셀러’이기도 함.
- 하지만 조선은 하멜과 불행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말았음. 당시 조선은 하멜 일행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더욱이 이들을 통해 서구의 동향이나 서구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는 미미하였음. 조선은 하멜 일행을 13년간이나 억류하였지만, 이들의 머리에 있는 선진적인 이(異) 문화를 받아들여 자국 문화를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지 못하였음. 그야말로 당대 조선 지식인의 폐쇄적인 세계 인식을 보여준 꼴.
- 조선은 하멜 일행으로부터 획득한 서구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극히 적었음에 반해, 하멜이 조선을 기록한 지식과 정보는 그 양과 질에서 조선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였음.

- 17세기 전후로 조선조는 해양을 중시(重視)하지도 않았고, 바다 너머로부터 오는 서양의 다양한 소식과 선진적인 문화 등에 귀를 막고 시선조차 두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19세기까지 이어졌음.
- 당시 조선과 달리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을 단행하면서 문명개화를 부르짖으며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갔음. 일본의 명치유신과 개방은 외국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었음. 일찍이 포르투갈을 통해 일부 기술 문면을 수용하였고, 이후 ‘난학(蘭學 : 네덜란드로 부터 받아들여 성립한 학문)’ 같이 축적된 서양의 이해와 세계로 시선을 열어 두었음. 특히 해양의 출구를 닫지 않았고 바다 너머의 소식과 정보에 귀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임.
- 조선조 지식인들이 바다 너머 미지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큰 패착이었음. 일부 조선의 지식인들이 해양을 향해 학지(學知)를 열어 두었지만, 해양을 활용하여 구체화하지 못하였음. 그 결과 조선은 19세기 밀려오는 西世東漸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거나 이를 장악하는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음.

### 3. 중국, 그리고 중국 너머

- 전근대 세계는 하나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세계를 형성하였음. 세계 각 지역의 하나의 문화권은 하나의 소우주이자 작은 세계였음. 라틴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등과 같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도 그중 하나.
- 한자문화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형성된 하나의 소우주이자 작은 세계.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 전근대 한반도 지식인은 중국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중국을 놓고 존재를 확인하거나, 중국이라는 창을 통해 그 너머를 엿보았기 때문임.

## (1) 문화와 지식의 큰 창구, 중국

- 한반도에서 성립한 국가가 중국과 만나는 방식은 두 가지. 대립과 협력. 대립은 침략의 형태로, 협력은 교린의 형태로 나타남. 역사상 중국 주변에 존재하였던 다수의 이민족은 중국을 침략한 뒤, 건국하면 무력을 동원하여 이어서 한반도의 국가를 침공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한반도 지식인들은 중국과 대립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보고 수용하기도 하며, 자국의 지식 정보도 건네주기도 하였음. 당시 지식인들은 중국을 새로운 문화 수용의 창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음.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특히 17세기 이후 세계적인 제국 청의 수도 북경은 다양한 이(異) 문화가 공존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성하고 교류하는 선진문화의 공간. 청나라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자는 북학(北學)은 그래서 탄생하였음.
- 청나라는 북벌(北伐)의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북학의 요지. 조선 지식인들이 세계적인 제국의 수도 북경을 방문한 뒤, 오랑캐라고 여겼던 만주족 청나라의 선진 문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당시 조선은 문화적으로 중국의 정통을 잇는다는 소중화(小中華) 의식에 사로잡혀 만주족을 문화가 없는 야만으로 여기고 청나라를 무시하였음.

- 이러한 중국 문화의 정통이 자신에게 있다는 소중화 의식은 결과적으로 세계의 흐름이나 조선의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관념에 지나지 않았던 허구였음.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실학(實學)이며 북학(北學)이었음.
- 북학파(北學派, 利用厚生派)는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깨뜨리고, 청조의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 북학을 제시. 북학은 연행(燕行, 청나라의 수도 북경에 사신을 다녀오는 것)을 통해 형성된 것임. 연행은 청조와의 조공체제하에서의 의례적 외교이지만, 한편 청조의 정세를 파악하고, 세계적인 제국 청조를 통해 밖을 엿보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함. 그뿐만 아니라, 해양을 닫아 놓은 상황에서 더 넓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연행이며, 청조에 드나들던 서양인과 서양문물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연행.
-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 연행의 목적이 청나라를 둘러싼 내부 동향과 함께 세계질서의 흐름을 엿보는 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연암의 언급 역시 중국의 창을 통해 중국의 내면과 세계사의 조류를 읽으려고 한 것임.

## (2) 중국에서 만난 이역(異域)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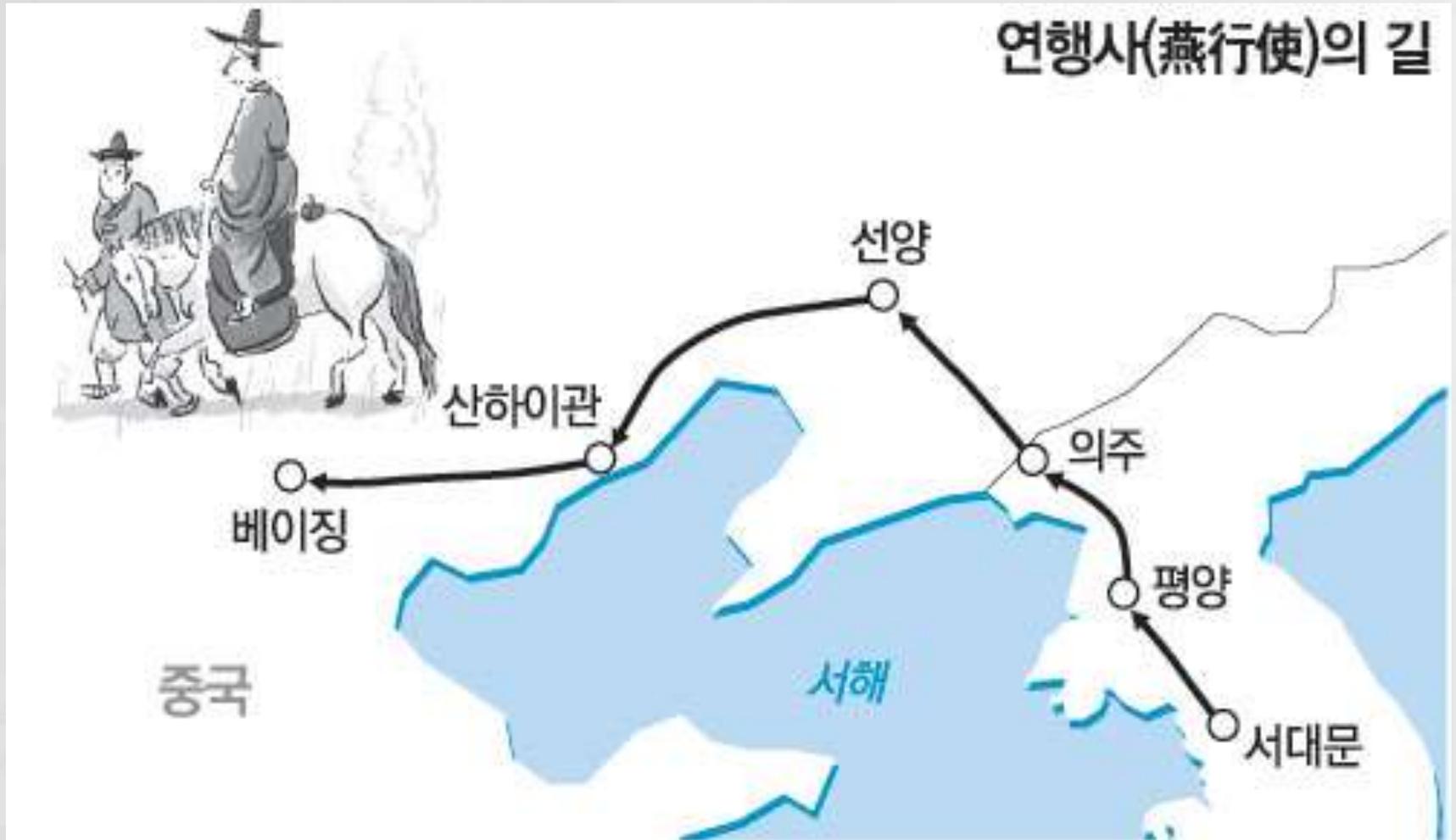
- 한반도에 이역인(異域人)이 거주한 예도 있음. 조선 <태종실록>에 “회회사문(回回沙門) 도노(都老)가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조선에 살기를 원하므로 집을 주어 살게 했다.”라 함.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귀화하여 살며 문화적으로 교섭. 하지만 이는 예외적이며, 이역인과 이역 문명의 만남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원(元)나라 시기에든 이러한 경우는 있었지만, 조선조의 경우, 연행 사행에 참여한 조선 지식인들은 북경에 사신으로 온 이역의 사람과 만나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경우가 대부분.
- 유득공(柳得恭, 1749~1807)은 연행 도중에 회회인(回回人)을 만나 교류. 유득공이 연행하던 1790년은 청조가 원정을 감행하여 영토를 최대로 넓혀 놓았던 때. 당시 청조는 생산력과 무역에서 이미 제국의 규모를 갖추. 연행에 참여한 유득공이 본 것은 청조의 번성은 물론, 청조에 사신 온 주변국 지식인, 서구의 선교사, 이역(異域) 사신 등임. 이들과 만나 교류함. 조선조 후기 연행에 참여한 조선 지식인은 몽고, 대만, 안남(安南, 지금의 베트남)을 비롯하여 한자문화권이 아닌 회회국 사신과 만나 교류하는 경우도 많았음. 유득공이 만난 회회국 사신도 하나의 사례.

- 유득공은 회회국 사신과 대화 중에 회회국 왕이 한어와 몽고어, 만주어를 두루 잘 하는데 적지 않게 놀람. 이국 언어의 습득을 통한 상호 소통은 문화 교류의 시발점. 이를 계기로 유득공이 이역의 국가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 유득공이 만주·몽골·회회(回回)·안남(安南:베트남)·남장(南掌:라오스)·면전(緬甸:미얀마)·타이완·일본·나가사키 및 영국과 네덜란드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러한 인식의 결과.
- 청나라는 강희제(康熙帝)이후 서양 선교사들을 옹호하며 서구 문화와 서구의 과학기술에 적극 관심을 보임. 선교사들은 황제의 승인 아래 북경에 천주당(天主堂)을 세우는 등 서구 문화를 청조에 전파.
- 연행에 참여한 조선 지식인들 역시 천주당에서 서구 문화와 쉽게 만나게 됨. 조선 조 후기 연행 사신이 반드시 들르는 방문지의 하나가 북경의 천주당(天主堂). 천주당은 북경의 동·서·남·북 네 곳에 있었음. 연행 사신들은 천주당에서 서구 문물을 견문하고 더러 선교사들과 만나 서구 문물을 전해 듣고 서로 교류함.

-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열하일기』에서 천주당을 방문하고 이를 기록. 일부 지식인은 서구의 과학기술을 견문하고 서구 문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물론, 서구의 과학기술을 수용. 연행에 참여한 이들은 청을 통해 바다 건너 서구 문화를 이해.
- 홍대용은 ‘마테오리치[利瑪竇, 1552~1610]’를 특별히 주목. 마테오리치는 서구 문화를 중국 현지화에 성공시킨 인물. 마테오리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소속 선교사. 또한 인문학, 어학, 천문, 지리, 수학, 과학, 미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소양을 갖춘 학자. 각종 지도와 시계, 달력, 지구의 등을 제작. 그는 선교에 앞서 서구와 다른 동아시아의 ‘문명’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구 문화를 중국에 뿌리내리는데 심혈을 쏟음. 그는 중국어와 한문을 습득,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유학의 원리를 이해. 여기에 중국 문화를 유럽에 소개하는 데도 주력하여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옮김. 이 점에서 마테오리치는 동서의 문화를 융합시킨 ‘세계인’. 조선조 후기 지성의 한 사람이던 홍대용이 그를 주목한 것은 이 때문임.

#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사행>

## 연행사(燕行使)의 길



【‘연행도’ 중 제9폭 ‘조공’. 조공을 하러 북경에 간 연행사들과 그 일행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오른쪽 하단의 인물들이 조선 사신들이다.】



【‘연행도(燕行圖)’ 14폭 중 조양문(朝陽門)을 그린 장면】



## 4.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발견

- 한국 고대 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대륙의 중국 문화가 큰 역할을 하였고, 일본 고대 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일본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상호 교류 속에서 자국 문화를 살찌웠음.
- 고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지속해서 교류하였음. 발해는 왜와 교류하고, 고려는 원나라와 함께 일본 정벌에 나서 적도 있으며, 거꾸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든 적도 있음. 이처럼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만남은 가깝고도 먼 사이. 그런데 두 지역 간의 교류를 보면 공식적 외교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朝鮮通信使)와 일본의 에도 막부가 파견한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도 그러한 사례. 특히 이 외교사절단은 두 나라 간의 교린을 통해 우호를 지향했던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상징이자,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였음. 그런데 조선통신사는 에도 막부가 성립한 이후에도 일본과 조선 간의 중요한 교류에서의 창구 구실을 하거니와, 통신사의 경우 조선보다 일본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

- 조선 통신사는 1607년에 시작되어 2백여 년 동안 모두 12차례. 참여 인사들은 문학과 예술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 일본의 지식인들도 이들 일행과의 문화 교류에 힘을 씀. 그 과정에서 조선 통신사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함. 당시 통신사 일행이 머무는 곳마다 일본 지식인들은 시문의 비평, 글씨의 품평, 자신이 쓴 책에 서문을 받으려 노력함. 통신사와의 교류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얻고 자신의 학술과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에도 막부가 조선 통신사 접대를 위해 지출한 경비는 농업생산량의 3-12%에 이를 정도의 재정.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에는 구경을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바, 거의 열풍에 가까울 정도로 조류(潮流)를 이룸. 이 점에서 통신사의 길은 문화 교류의 길이자, 조선 문화 전파의 길이기도 한 것임.
- 하지만 조선 통신사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일본 내부와 속사정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경우는 적었음. 일본의 참모습을 보기보다 일본과 일본 문화를 깔보는 경우가 많았음.

- 계미통신사(癸未通信使, 1763년)에 참여한 원중거(元重擧, 1719~1790)는 일본인이 지닌 장단점에서부터 일본인의 품성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 근면성,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 규칙을 준수하는 자세와 의복과 음식, 그리고 기술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
- 그의 언급은 현재 ‘일본’과 일본인의 모습을 떠올리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 또한, 조선조 후기 지식인은 일본을 통해서 서구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적지 않게 얻었음. 해부학이나 자명종, 망원경, 안경 등. 통신사에 참여한 인사들이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고, 한편으로는 견문 지식과 일본 서책을 통해서다. 당시 외국 정보를 얻는 경로는 청나라이지만, 일본에서도 적지 않게 외국 관련 소식을 접하였음.
-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령국지(蜻蛉國志)』는 일본의 종합 정보지. 그는 『청령국지』에서 네덜란드가 자카르타를 무역의 거점으로 삼고 세계 36개국의 나라와 교역하는 사실, 동남아 토산품을 가져와 일본에 되파는 중개무역을 하는 실상, 무역선의 규모와 크기, 일본에 무역하는 물품 등을 제시. 또한, 그는 네덜란드가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인공 섬을 거점으로 일본과 무역을 하며, 일 년에 한 번, 에도[江戶]까지 가는 것도 기록.

- 조선조 후기 일부 지식인처럼 이국 문물과 일본의 민족성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는 드물었음. 이는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문화 수준이 낮다는 인식과는 사뭇 다른 시선. 사실 조선이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만나는 마당에, 이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였음.
- 그런데도 조선 통신사에 참여한 인사들은 대체로 자국 문화가 우수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일본의 경우 받아들일 문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의 선진 문화나 앞선 기술, 실용 정신을 정확히 볼 리가 없었음.
- 조선 지식인의 이러한 피상적인 일본 인식과 부정확한 기록이 뒷날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음. 집권층의 관념적 우월 의식과 타자와 타국 문화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일국 너머의 정세 변화에 둔감한 인식은 경직된 사유와 닫혀 버린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

##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의 사행>



# <조선통신사 행렬도 (대영 박물관 소장)>



【에도 막부에서 그린 조선통신사행도】



【조선통신사 행렬도. 조선통신사가 전명식을 마치고 일본 도쿄의 나혼바시를 지나 숙소로 향하고 있다.】

